



## ■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 21세기에 대세를 전환하다



원제 : Latin America After Neoliberalism : Turning the Tide in the 21st Century?

노르마 친치야, 라스 솔츠, 루이스 레이가다스, 리슬 하스, 마크 아너, 마크 웅거, 셰인 그린, 아라셀리 다미안, 에릭 허쉬버그, 윌리엄 I. 로빈슨, 주디스 애들러 헬먼, 카를로스 M. 빌라스, 캐서린 하이트, 콜레타 A. 영거스, 폴 W. 드레이크, 프레드 로젠, 훌리오 볼트비닉 (지은이), 강혜정, 김종돈 (옮긴이)

출판사: 모티브북

출간일 : 2008-09-29

ISBN(13) : 9788991195288

448쪽 | 223\*152mm (A5신)

차베스, 룰라, 모랄레스부터 최근 파라과이의 루고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정권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미국과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라틴 아메리카만의 정치·경제적 독립 등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부패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는 이런 라틴 아메리카를 둘러싼 정치와 경제 문제를 조명하고, 그 쟁점을 14장에 걸쳐 국

가별 정세와 역사, 통계 자료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미국, 빈곤, 마약, 인권, 범죄, 민족, 여성, 불법체류 및 월경(越境) 등 세분화된 키워드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되어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 ■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이강혁 (지은이)  
 출판사: 가람기획  
 출간일 : 2008-11-01  
 ISBN(13) : 9788984352865  
 반양장본| 528쪽| 223\*152mm (A5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해 이렇다 할 지침서를 만나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역사’ 자체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라틴아메리카 역사는 엄두를 내기 힘들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33개국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그 33개국이 한 문화와 한 인류와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100』은 역사에 관심 많은 독자부터 역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까지,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100으로 구성하였다. 100가지 주요 장면을 간추려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한 통시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한 지침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 블랙 자코뱅 - 투생 루베르튀르와 아이티혁명



시엘 아르 제임스 (지은이), 우태정 (옮긴이)

출판사: 필맥

출간일 : 2007-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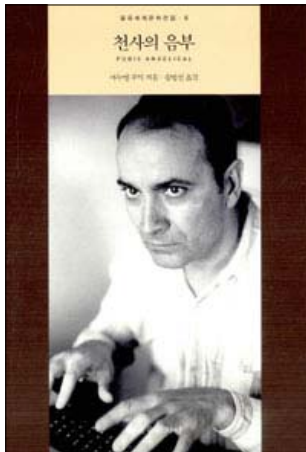
ISBN(13) : 9788991071377

반양장본 | 588쪽 | 210\*152mm

신간은 아니라도 할지라도 라틴아메리카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어서 소개한다. 이 책은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성공한 노예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흑인공화국이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독립국가인 아이티공화국을 세운 아이티혁명과 이 혁명을 이끈 주역인 투생 루베르튀르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이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의 저자 시엘 아르(C. L. R. James)는 이 책에서 1789~180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국가들이 노예무역 시대 이후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역사기록이나 역사소설의 범주를 넘어선다. 책을 읽으면서 노예무역에서 자행되던, 상상을 초월하는 서구인들의 잔혹한 행태들에 경악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주역들이 입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중성에 배반감을 느끼는 반면,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며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아이티 민중의 용기에 숙연해질 것이다.

■ 천사의 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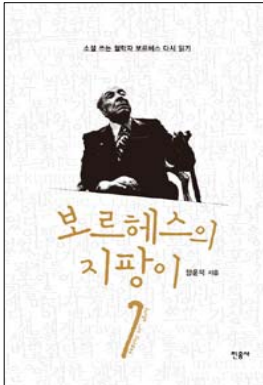


원제 : Pubis Angelical  
 마누엘 푸익 (지은이),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을유문화사  
 출간일 : 2008-08-20  
 ISBN(13) : 9788932403380  
 양장본| 412쪽| 196\*135mm

을유세계문학전집 제8권으로 출간된 『천사의 음부』는 『거미 여인의 키스』의 작가 푸익의 창작력과 기교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1979)에 쓰여진 대표작이다. 남성 작가가 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여자인 아니타는 암에 걸려 멕시코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녀에게는 페미니스트인 친구와 좌익 운동가인 애인이 있다. 그녀는 그들과 신상에 대하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작품의 외면적인 줄거리를 형성하지만, 소설 속에는 두 명의 낯선 등장인물이 더 들어가 있다. 그것은 아니타의 무의식 속에서 ‘여주인’과 ‘W218’이라고 호칭되는 두 여자로, 이들은 아니타의 분신으로 보이기도 하고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사의 음부』는 그의 소설 중 대중문화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침투한 작품이다. 특히 아니타의 무의식 속에 등장하는 두 여자는 푸익이 사랑했던 전설적인 여배우 헤디 라마의 삶과 그녀의 출연작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 ■ 보르헤스의 지팡이 - 소설 쓰는 철학자 보르헤스 다시 읽기



양운덕 (지은이)

출판사: 민음사

출간일 : 2008-09-25

ISBN(13) : 9788937426469

반양장본 | 410쪽 | 214\*130mm

보르헤스의 소설은 시간, 정체성, 영원, 거울, 미로와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영속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방대한 유럽 문학과 역사, 신학과 철학을 담고 있다. 보르헤스는 또한 독자를 정형화된 관점에 묶어 두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둔다. 그렇기 때문에 보르헤스라는 거울은 독자가 자신을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산출하는 또 다른 거울을 창조하도록 이끈다. 이처럼 방대한 보르헤스의 세계에 다가가는 건 끝없는 미로를 탐색하는 작업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특히 보르헤스 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 보르헤스 문학의 헤테로토피아 - 고갈되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



김수진 (지은이)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 2008-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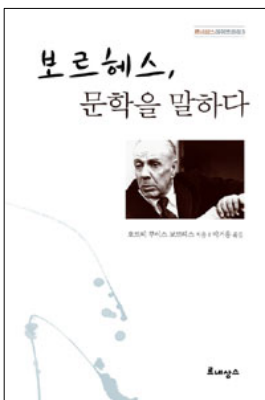
ISBN(13) : 9788953439436

280쪽 | 223\*152mm (A5신)

아르헨티나 태생의 작가 보르헤스는 글쓰기

속에서 혼재향적 우주를 구현해낸 대표적 작가로 여겨진다. 때문에 보르헤스의 문학세계를 혼재향적 우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정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검증작업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보르헤스의 문학세계를 일컬어 ‘혼재향적’이라 명명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를 보르헤스의 작품세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연구내용이다. 또한 보르헤스 특유의 인식론을 언어를 통해 표층으로 형상화시킨 보르헤스의 혼재향적 작품세계가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다.

### ■ 보르헤스, 문학을 말하다 (개정판)



원제 : This Craft of Verse (2000)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은이), 박거용 (옮긴이)

출판사: 르네상스

출간일 : 2008-10-20

ISBN(13) : 9788990828484

반양장본 | 207쪽 | 207\*137mm

이 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196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한 여섯 번의 특강을 녹취해 편집한 책이다. 삼십대 후반에 당한 불의의 사고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점점 시력을 잃어갔던 보르헤스는 하버드대학에서 이 강연을 진행할 당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다. 그의 강연을 녹음한 테이프들은 30년이 넘게 도서관 지하에 묻혀있었고, 최근 (2000년)에 와서야 하버드대학 출판부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